

신안 비금도에 佛 삼페인박물관·기념공원 조성

1851년 난파 선원 구조 인연 내년 황해교류역사관 전시도

신안군이 172년 전 비금도에서 프랑스와 시작된 인연을 바탕으로 삼페인 박물관과 기념공원을 조성한다.

26일 신안군에 따르면 1851년 프랑스 나발호 선원을 태운 포경선이 난파돼 비금도에 표류한 선원들을 기리는 기념공원을 짓는다.

2026년 한불수교 140주년을 맞아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조선과 프랑스 간에 체결된 '조불 우호

통상 조약'(1886년)보다 35년 앞선 1851년 비금도에 프랑스 포경선이 난파했다.

당시 중국 상하이 주재 프랑스 샤를르 드 몽티니 영사는 통역관과 함께 표류한 선원 20여 명을 구하러 비금도를 찾았다.

고초를 겪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선원들은 비금도 섬 주민들의 보살핌으로 잘 지내고 있었다.

철종 2년 비변사등록에는 "비금도 표류 이국인 20명 구환을 위해 튼튼한 배 2척을 골라 제공했다"고 기록돼 있다.

172년이 흐른 지난 5월 프랑스 파리 세

브르 국립도자기박물관에서 양국 첫 만남을 기념하는 행사가 프랑스 한국 대사관 주최로 열렸다.

몽티니 영사가 나주 목사에게 받은 옹기 호리병이 전시된 가운데 프랑스 삼페인협회 사무총장, 한국 막걸리협회 고문, 비금도 사건을 연구한 에마뉴엘 루 파리 7대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

몽티니 영사의 고향 툴루즈와 재매결연을 맺고, 2030년 비금-추포 간 연도교개통에 따른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프랑스 마을을 조성할 예정이다. 폐교 등 유휴시설을 새단장해 삼페인 박물관을 만들고 이 박물관에서 삼페인과 막걸리도

판매할 계획이다.

비변사 기록을 전수 조사·연구하는 학술용역을 추진하고 2024년 준공 예정인 황해교류역사관에 '신안의 표류 역사' 코너를 신설해 관람객에게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프랑스에서 비금도 사건을 연구한 에마뉴엘 루 교수를 신안으로 초청해 강연회도 계획하고 있다.

박우량 군수는 "신안군은 우리나라 해상교역 중심지 역할을 했다"며 "프랑스와 인연의 씨앗을 만드는 첫걸음을 내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소상공인 사업장 86곳 이차보전 영암군, 4%이자 4년간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업체 86곳 대출이자 차액인 '이자(利差)'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26일 밝혔다.

지난 5~6월 3주간 영암군은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 참여 희망자를 모집했다.

기존 이차보전보다 더 도움을 주기 위해 이자율 4%, 기간 4년으로 상향해 모집한 결과 목표량인 40개소를 초과해 86곳이 참여했다.

영암군은 전수조사로 사업장 현황을 방문해 실제로 운영하는지, 이차보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살폈다.

영암군 소상공인심의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상정해 목표량 215%에 해당하는 86개 사업장의 이차보전을 확정하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확정 안내문을 받은 사업장은 대출받을 금융기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자보전 지원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받아야 한다. 그 이후 효력이 소멸된다.

영암=이병영 기자

완도군, 청년 친화 우수 선정 주거·문화 맞춤 정책 결과

완도군은 국회사무처 소관 '(사)청년과 미래'가 주관하는 '2023년 청년 친화 현정 대상'에서 전남도 중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2018년 제정된 '청년 친화 현정 대상'은 지자체의 정책, 입법, 지원, 소통 분야의 청년 친화도를 평가하는 청년 친화 지수를 기준으로 심사해 선정한다.

정책 수요자인 청년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상을 선정해 의미가 남다르다.

완도군은 2018년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일자리, 주거, 문화, 교육, 복지 등 청년을 위한 여러 분야의 정책을 추진해 온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완도=최경철 기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추가 선정 목포시, 총 63개 제품으로 늘어

목포시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씨월드고속웨지 승선할인권, 보해양조매시세트 등을 28개를 추가 선정했다. 시는 기부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26일 목포시에 따르면 제2차 답례품 선정위원회(위원장 조길현)를 개최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추가 선정했다.

시는 이번 추가 선정에 대해 목포만의 경쟁력 있고 다채로운 답례품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목포에 2차 방문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체류형 관광서비스와 기념품 발굴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5월16일부터 6월2일까지 답례품 공급업체 추가 모집을 진행한 결과 21개 업체 32개 제품을 신청받아 업체별 현장 점검과 목포시 답례품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19개 업체 28개 제품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답례품 추가 선정으로 목포시 답례품은 목포해상케이블카 탑승권을 포함해 총 37개 업체 63개 제품으로 늘어난다.

목포=정기찬 기자

낙지 9000마리 방류사업 추진 신안군 팔금면 등

신안군은 갯벌생태계 회복을 위해 낙지를 방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낙지 방류사업은 자원량 증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암컷, 수컷 1마리씩 2~3일간의 교접작업 후 방류를 추진하고 있다. 교접을 통해 방류한 낙지는 일반적으로 200개의 알을 산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안군은 지난 7일을 시작으로 압해읍, 지도읍, 도초면, 팔금면, 안좌면 등 스마트빌리지 낙지자원 관리지역과 낙지목장을 중심으로 방류를 추진한다.

이번 방류는 총 9000 마리의 낙지를 방류하며 방류지역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금어기에 가까운 시일에 진행하고 어촌계를 중심으로 낙지의 남획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금어기를 확대하는 등 민과 관이 협력하여 자원보호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낙지자원을 방류하고 보호하는 만큼 자원량의 증대를 통해 지역민들의 소득이 높아질지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탄소중립 실현 전기버스 보급 목포시, 12월15일까지 신청

목포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3년 전기버스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26일 목포시에 따르면 2대의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며 대당 지원액은 중형 최대 8642만원, 대형 1억210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목포시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둔 만 18세 이상인 개인, 접수일 이전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목포시에 등록되어있는 개인사업자, 접수일 이전 목포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법인이다.

구매보조금 희망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기간은 26일부터 12월15일까지이며 접수 후 결격사유가 없어 사업참여 자격을 부여받은 신청자는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 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최종적으로 지원가능 확인요청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포=정기찬 기자



무안 심향읍지사혈, 해충퇴치 방역소독

무안군 심향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최근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세대를 대상으로 해충퇴치방역소독사업을 시행했다.

무안군 제공

해남군, 60ha 규모 전국 최대 농업연구단지 조성

해남군이 국립 기후변화대응센터가 들어서는 삼산면 평활리 일원을 농업분야 기후변화대응의 메카로 조성한다.

해남군은 국립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에 맞춰 약 60ha 규모의 전국 최대규모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에는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와 전라남도 과수연구소(25ha), 군 농업연구단지(30ha)가 들어선다.

지난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기에 통과한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는 올해 토지 보상비와 기본 설계비를 확보한 가운데 하반기에는 농식품부의 기

본계획 용역을 통해 대응센터의 세부 역할과 건축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는 농업분야 기후변화대응 본부로서 전국 도 단위 농업기술원을 지역센터로 활용해 기후와 밀접한 농업분야의 기후변화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2026년 운영을 목표로 내년 설계 용역에 착수해 하반기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총 사업비 295억원 규모의 전라남도 과수연구소는 대지면적 25ha 부지 내 지상 2층 지역특화과수 지원센터를 비롯해 비닐하우스, 온실, 노지실증포를 조성할 계획이다. 2022년 하반기부터 기본 및 실

시설계를 착수해 2024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이다.

해남군에서 조성하는 농업연구단지에는 고구마 연구센터, 청년농업인 임대농장,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등 앞으로 해남의 미래농업을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기반이 구축된다.

지난해 9월 군 관리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각 분야 전문가와 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단지 구성을 통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다음달 입안할 계획이다.

명현관 군수는 "민선8기 농업연구단지 조성 등 기후변화대응 관련 사업이 차질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남=전연수 기자

목포문화원, 목포항일독립운동 자료집 발간

목포문화원(원장 김정기)이 목포시와 전남도 지원을 받아 시군역사문화자원발굴사업으로 진행해 목포 항일독립운동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료집은 1부 화보, 2부 목포 항일독립운동사, 3부 재판기록(형사사건부·판결문), 4부 신문조사, 5부 공훈록, 6부 신문기록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목포지역 항일독립운동 자료집에는 일부 새로 밝혀진 사실들이 눈길을 끈다. 4·8독립만세운동 당시 주역으로 '일본 유학생' 으로부터 알려졌던 남궁혁이 일

본 정칙영어학교 학생이었다거나, '서울 유학생' 오도근은 경성고보, 김영주는 휘문의숙 학생이었다는 사실, 곽우영이 양동교회 목사로 명기되는 등 성명과 나이 직업 등이 기록된 4·8만세운동 형사사건부가 발굴돼 성과를 남겼다.

1921년 일어난 영흥·정명 학생 주도 제2차 독립만세운동 당시 경찰에 체포돼 검사국에 넘겨진 인물만 119명, 1929년 목포상업학교학생 시위 때는 80여 명이 이른다는 사실은 당시 목포지역 독립운동이 학생과 일반인이 함께 참여한 대규모

시위였음을 보여준다.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이 많은 기록 등을 통해 발굴 정리된 것도 의미를 지닌다.

목포문화원은 이번엔 형사사건부·판결문 등 재판기록, 신문조사, 당시 신문기록 등을 중심으로 자료집을 낸 데 이어 각 사건·부분별 전문가 집필을 통해 목포 항일독립운동사를 올해 말 발간할 예정이다.

김정기 목포문화원장은 "목포지역은 항일독립운동이 치열했던 곳이었음이 입증됐다"며 "목포 항일독립운동의 올바른 정립은 물론, 미서훈 독립운동가에 대한 서훈 및 선양사업으로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